

+ 강민수 · 방송기술저널 기자



Field Report

추억이 된 아날로그, 새 역사가 될 디지털

전국 최초로 디지털 전환을 완료한 울진지역을 가다

지난 9월 1일 오후 2시, 울진지역 지상파 중계를 담당하던 현종산과 온정 TVR(Television Repeater : 간이중계소)에서 전국 최초로 아날로그 TV방송 중계기의 전원이 꺼졌다. 지상파 아날로그 TV방송의 첫 종료, 울진은 2008년 발효된 '디지털 전환 특별법'의 첫 번째 시범지역으로서 그 역할을 무사히 해냈다.



[현종산 정상에서 바라본 TVR 중계탑]

현종산 TVR을 가다

울진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간이중계소는 현종산과 온정 TVR, 두 곳이다. 태백산맥이 힘차게 뻗어있는 경북 울진지역은 그 산세가 워낙 험준해서 고도가 가장 높은 두 곳에 TVR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다. 그 중 우리가 찾아가는 현종산 TVR은 승용차 한 대가 겨우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좁다란 길을 10여 분 이상 차로 달려가서야 만날 수 있었다.



[현종산 TVR 중계탑과 현장 견학 중인 경북지역 방송기술인들]

현장에는 마침 디지털 방송 전문인력 양성교육을 받던 경북지역 방송기술인들이 견학을 와 있었다. 그들은 전국 최초로 아날로그 TV방송을 종료하는데 대해 큰 관심을 보였고, 중계소 내의 각종 중계시설들에 대한 설명을 경청하며, 기기의 작동을 관찰했다.



[포항 MBC 중계시설]



[KBS, EBS 중계시설]

아날로그 TV여, 안녕!

같은 날, 울진 엑스포 영상관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와 경북 울진군이 '디지털 전환 선포식'을 개최하여 전국에서 가장 먼저 지상파 아날로그 TV방송을 종료하게 된 날을 기념했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기념사를 통해 "지상파 디지털 방송을 통해 울진지역에 보다 선명한 화질과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저소득, 고연령대의 디지털 격차를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행사에는 방송통신위원회 최시중 위원장을 비롯해 KBS 김인규 사장, MBC 김재철 사장, SBS 우원길 사장, EBS 박덕훈 사장 등이 참석했으며, 울진지역의 시민들도 함께 자리해 역사적인 아날로그 TV방송 종료의 순간을 지켜봤다. 이 날 행사는 KBS1 채널을 통해 전국에 생방송 됐다.



[방송통신위원회 최시중 위원장의 기념사 낭독]



[울진군, 아날로그 TV방송 종료 순간]

디지털 전환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지난 9월 1일 오후 2시 이후로 울진지역 주민들은 KBS1을 제외한 모든 채널을 디지털 신호로만 수신 할 수 있으며, KBS1의 아날로그 송출도 화면의 80%를 디지털 전환 안내공지로 채워 30일 동안만 운영된다. 뒤늦게라도 KBS1 채널의 안내공지를 접하는 모든 지상파 수신가구는 디지털 수상을 비치해야 지상파 디지털 방송을 수신 할 수 있다.



[DTV 전환 후 KBS1 아날로그 채널]



[DTV 전환 홍보물]

2012년 12월 31일 새벽 4시에는 전국의 아날로그 방송이 일시에 종료된다. 따라서, 이번 울진지역의 ASO는 전국 디지털 전환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도 시청자들의 지상파 방송 디지털 전환에 대한 인지도가 낮고, 디지털 전환의 필요성을 느끼는 가구도 많지 않다. 울진지역의 디지털 전환이 10월 6일, 11월 3일, 2011년 6월 29일에 각각 치러질 단양군, 강진군, 제주의 아날로그 TV방송 종료의 홍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보다 많은 시청자들이 디지털 전환에 대한 인식을 키웠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하다.